

교촌치킨, 코스피 입성 '상장예비심사' 통과

증권신고서 제출 예정
전포 매출 6억

교촌에프앤비(이하 교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10일 교촌에 대한 증권시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

교촌이 지난 4월23일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지 약 5개월여 만이다. 교촌은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따라 9월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교촌은 2019년 기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3693억원, 당기 순이익 210억원을 기록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6억 1827만원(2018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등록된 치킨 브랜드 중 가장 높다.

교촌 관계자는 "이번 예비심사 통과로 프랜차이즈 직장장 1호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며 "상장을 통해 글로벌 종합식품외식 그룹으로의 비전 달성과 함께 가맹점과 본사의 동반 성장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30% 깎아주니...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과열'

22일 인천공항 1T 재입찰... 업계 "해볼만 하다"
"지금 못 가져가면 10년간 인천공항면 사업 포기"
"공항 제시 조건 너무 파격... 후발 기업 공격 투자 기대"

면세업계는 5일 앞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재입찰을 두고 분주해졌다. 올해 2월 사상 처음으로 면세점이 유찰되자 인천공항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이달 22일까지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재입찰 신청을 받는다. 기존 신청 기한은 14일이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미뤄졌다.

국내 면세점은 이달 7월 1조25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2.5%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2조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를 찾는 외국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3~6월동안 국내를 찾은 외국인은 9만7000여명으로 전년대비 98% 감소했다. 면세점 빅3(롯데·신라·신세계)의 상반기 영업 적자 합산은 2444억원에 이른다.

이에 주요 면세점들은 생존을 위해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서

울 코엑스점과 부산점의 휴무일을 일요일과 월요일 주 2회로 늘렸다.

신라면세점도 제주공항점, 제주 시내점, 김포공항점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더불어 서울 시내점과 인천공항점은 단축운영 중이다. 신세계면세점도 올해 5월부터 강남점과 부산점의 영업 휴무일을 주 2회로 늘렸다.

롯데면세점은 해외사업까지 축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만법인을 철수했고, 하반기 태국과 인도네시아 사업도 접을 예정이다. 이에 롯데면세점의 해외 사업장은 기존 8개국 14개점에서 6개국 12개로 감소된다.

면세업계는 코로나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인천공항 재입찰 조건이 파격적이라 마냥 포기하기도 어렵다. 초기 공항과 업체간 의견 마찰이 있었지만 공항 측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해줬다. 임대료도 30% 낮췄고, 공항 여객수가 코로나 이전 80% 수준 회복까지 매출 연동제를 실시한다. 또한 운영기한도 10년으로 늘렸다.

내년 하반기 코로나 종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어려움만 넘기면 향후



인천공항 전경. 사진=이기룡 기자

10년간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입찰 대상은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주류·담배·식품 ▲DF6 패션·기타 ▲DF8 전 품목 ▲DF9 전 품목 등 6개 사업권 33개 대장이다. 현재 DF3은 롯데면세점, DF2·4·6은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입찰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던 DF7(패션·기타)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가져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롯데와 신라면세

점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입찰을 모두 포기하면 인천공항에서 완전 철수하게 되고, 향후 10년간 진입이 어렵다. 롯데와 신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시장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 반면, 현대면세점은 최근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어, 이번 인천공항 재입찰을 통해 점유율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이 이전과 달리 과열 양상을 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파격적이라 이번 입찰에 후발주자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전망된다"며 "롯데와 신라의 경우 인천공항을 다 뺏기엔 부담스러워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배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면세점들이 입찰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입찰 참여를 염두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영 기자 jly@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유통가 오너들, 추석연휴도 '분주'

롯데 신동빈, 일본 체류 유력... 韓日 양국 롯데 쟁거
신세계 정용진, 추석 기간 독서로 코로나 전략 구상



(좌측부터)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사진=각사

주요 유통가 오너들이 코로나 시국에 맞는 추석에는 조용히 휴식하며 독서나 포스트 코로나 전략 구상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일본으로 출국해 한달째 체류 중이다. 올해 5월 일본에서 귀국에 약 3개월간 주요 사안을 처리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롯데를 챙기는 중이다. 신 회장은 지난 3개월간 대대적인 인사·사업개편을 단행했다.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황각규 부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롯데하이마트 이동우 사장이 후임을 맡았다. 위기를 맞은 롯데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라는 평가다.

또한 점포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 이달 초 빅마켓 도봉점, 경기 이전 마장 휴게소점 등 3개 점포 영업을 종료했다. 롯데마트는 연내 16개 점포를 정리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이후 현재까지 신영통점과 양주점, 천안아산점, 킨텍스점, 천안점, 의정부점, 금정점, 서현점 등 8개점 영업을 종료했으며 서울 내 점포 정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추석 연휴에 읽을 책 3권을 SNS계정에 올렸다. 이달 7일 '추석 연휴때 읽을 도서 구입'이란

글과 함께 ▲초격차: 리더의 질문 ▲빅체인지: 코로나19이후 미래 시나리오 ▲투자의모험 등의 도서 사진을 게재했다.

'초격차: 리더의 질문'은 반도체 연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의 저서다. 또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내놓은 책이다. 코로나 이후 한국과 세계 경제 분야에서 일어날 변화를 3년 내 닥칠 단기 변화와 10년 이상 이어질 중장기 변화로 구분해 설명했다. '투자의 모험'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 그룹인 블랙스톤을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한 창업자,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이 쓴 책이다. 리스크를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프로세스를 다뤘다.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은 이번 연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경영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대백화점그룹은 특유의 위기 속 과감한 투자를 보이며 신사업 확장과 몸집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섬을 통해 '클린젠 코스메슈티칼'을 인수한 데 이어 화장품 원료기업인 SK바이오팜까지 인수하면서 뷰티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알짜배기 투자는 '현대 HCN'을 매각하며 신사업 확장을 위한 충알까지 두둑히 챙겼다.

이준영 기자 jly@meconomynews.com

추석 이동제한에 호텔예약 급상승

지방 호텔·리조트, 10월말까지 예약 만실

호텔업계가 정부의 추석 연휴 이동제한 권고로 오랜만에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오랜만의 반등을 기대하면서도 매년 추석 연휴 이후 진행한 '포스트 추석' 마케팅은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호텔·리조트는 대부분 추석 연휴기간 예약이 차다. 정부의 연휴기간 이동 자제 권고로 귀성길에 오르기도 시내에서 연휴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도 호텔·리조트들의 예약은 올해 10월까지 꽉 차는 전연이다.

호텔 관계자는 "지방 호텔은 코로나

시기에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었다"며 "추석 연휴 이동제한과 맞물려 대부분 객실이 만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양극화가 심해 전체로 보면 객실률은 75% 수준으로 예년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지방 호텔들에 비해 시내 호텔은 거리가 차원이 호텔 내 부대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객실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룸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전연이다.

또 다른 호텔 관계자는 "시내 호텔은 주고객이 외국 관광객이기 때문에 내국인만으로 객실을 매우기가 쉽지 않다"며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명동·을지로 등의 호텔 중 장기 휴점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호텔들은 추석 연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연박 패키지'와 힐링할 수 있는 '스파 패키지' 등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아직 거리두기 2단계임을 염두해 방역 강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준영 기자 jly@meconomynews.com

2015년 Press Lions

Bronze Lion Campaign

Title: GHOSTBUSTERS
Client: NETFLIX
Agency: DDB VANCOUVER
Product: ENTERTAINMENT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넷플릭스
디디비 밴쿠버
온디맨드 엔터테인먼트

Copy: You gotta get it, to get it.
신정환 엔터테인먼트 플리머, 당연히 넷플릭스!